

석유산업 자유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향후 대책

류 해 용
〈현대정유 영업기획팀 과장〉

1. 머리말

바야흐로 석유산업에도 자유화·개방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97년 1월 1일부로 국내 석유류 판매가격의 자유화 및 석유류 수출입 자유화, 유통업 신규진입 자유화를 본격 실시했고, 99년 1월 1일부로 국내 정제업 진입 자유화 및 대외개방 등 석유산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와 관리하에 있

었던 정유산업이 자유경쟁 구도 속으로 본격 진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내 각 정유사들은 물론 국내 시장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석유 메이저들은 국내 시장에서 대내외적인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 석유산업 자유화의 의미

97년 1월 1일부로 실시된 석유산업 자유화는 크게 유가 자유화와

석유제품 수출입 자유화, 유통 자유화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에 본격 가입하게 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개방화에 대비해 국내 정유사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단의 조치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들자면 그 동안 정부가 적정가격으로 책정해 관리해 왔던 석유제품의 가격을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가 자유화가 바로 그것이다.

유가 자유화 조치는 국내 석유류의 판매가격을 자유화했다는 그 자체 보다 정유사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자사의 손익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즉, 이제까지 석유업계는 자사의 수익/비용과는 상관없이 정부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팔고 그 수익으로 기업을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자사의 수익/비용을 바탕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이 타사의 가격에 경쟁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 자사제품의 판매가격을 확정시켜 수익을 관리하고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입 자유화는 국내/국제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해 정유사의 시장구도를 확대시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수출입을 결정, 손익관리의 유연성을 부여하였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

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유통업 자유화도 역시 누구든지 스스로의 책임으로 석유류 유통시장에 참여해 시장 행위로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등 결과적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일련의 자유화 조치는 석유업계의 자생력을 시험하는 위기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3. 예상되는 유가관리 제도

국내 정유산업의 태동 이후 35년 이상 통제되어온 국내 석유류 가격 구조가 석유산업의 자유화와 동시에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시행 초기에는 상당 기간 동안 정부에 의한 보이지 않는 간접적 통제든 정유사의 자율적 조정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의 연동제 구조를 유지시켜 가리라고 본다.

외국의 유가 자유화 선례를 보더라도 자유화 초기에 단기간의 출혈 경쟁은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주변 국제 시장의 가격에 연동시켜 수입도착가 수준으로 국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로 볼 때 국내 유가도 현 연동제 틀을 기본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유사가 안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누적 손실과 정유사 및 유통업계의 이윤 인상 욕구등에 따라

국내 유가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승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72년 7월 이후 유지되어 오던 전국 균일 수송비가 폐지되고 지역별 차등가격이 예상됨에 따라 수송비 현실화로 인한 유가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4. 현대정유의 향후 대책

(1) 국내부분

국내 부문에서도 생산 가격, 대고객 전략, 판매사업 강화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① 생산

생산부문에서는 선진 정제기술을 타정유사보다 먼저 도입해 가동하므로써 축적한 기술적인 노하우와 20만 배럴 정제시설에 도입한 최신의 첨단공정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석유제품의 품질을 강화해 제품 경쟁력을 높히는데 주력할 것이다. 중질유 분해시설이나 탈환시설등의 고도화시설로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들 시설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에도 노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진행중인 BTX 공장의 신설을 비롯한 석유화학이나 가스산업 등 연관산업의 투자를 더욱 강화해 경영의 다각화를

피할 계획이다. 이는 원유정제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주 원료로 하는 유회부문에 집중투자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데 있다.

② 가격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석유제품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정유사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시장가격은 지역간의 수송저유비 차이에 의한 가격차별 정도는 예상할 수 있으나, 동질·동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과점시장에서 차별가격을 형성시키기는 쉽지않다. 따라서, 국내 판매가격은 타사 및 국제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없는 적정 수준의 가격을 설정할 것이다.

③ 고객 전략

고객전략으로는 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계절별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해오던 이벤트 행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기존의 행사를 연례행사로 정착시키고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봄에 열리는 드림 콘서트는 서울 뿐 아니라 대도시로 확대 개최하고, 여름의 해변영화제는 전국의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확대하며, 가을의 오일뱅크 오토영화제도 그 규모를 점차 늘려갈 것이다. 또, 겨울에 열리는 스키캠프는 행사를 더욱 확대

해 대규모성 이벤트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④ 판매사업 강화

주유소를 거점으로 한 현대정유의 판매사업전략도 야심차다.

먼저, 유외사업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주유소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이미 유외사업팀을 신설해 일선 주유소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주유소를 단지 기름만 넣는 곳이 아닌 종합 생활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세차장이나 경정비 센터는 기본으로 하고, 그외에 지역적인 조건에 따라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편의점, 꽃집, 레코드점, 농산물 특판장,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개설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주유소에서 각종 보험업무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둘째, 대리점과 주유소와의 개별 협력관계 강화를 들 수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현대정유는 경영지도 진단팀을 발족시켰다. 주유소 경영 및 관리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단팀은 신규 주유소와 경영이 부실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리전반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분석,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하게 된다.

셋째, 영업 부문 강화를 위해 전 사원을 대상으로 주유소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원들에게 영업 마인드를 심어줘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실습 종료후 현장 보고서를 작성해 영업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와같이 판매사업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대정유의 고유한 판매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갈 것이다.

(2) 국제부문

국제부문은 크게 네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유전개발 및 매입등의 상류 부문 투자다. 단일 또는 합작 컨소시엄 형태로 탐사를 통해 생산광구를 확보해 나가고 적극적인 유전의 매입으로 2천년경에는自社 정제원유의 10~20%를 해외 유전에서 직접 조달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로 가격 조정을 통한 이윤획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업계 최초로 지난 8월 美 알래스카산 원유를 도입한바 있고,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셋째, 산유국과의 비공식적인 외교를 통해 우호 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유류 파동에 대비한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그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것이다.

넷째,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95년 3,400만달러에 불과했던 수출 물량이 96년에는 일산 20만배럴 증설과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에 힘입어 95년 수출 실적의 16배인 5억 7,0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현대정유는 제품의 수출에 더욱 주력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수지 개선에도 당당히 한 몫을 할 것이다.

5. 맺는말

현재 국내 정유업계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바야흐로, 개방화·자유화에 따른 홀로 서기의 전환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OECD의 가입으로 더욱 가중된 개방화의 바람을 견뎌 낼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항상 위기와 기회는 함께 찾아오는 것처럼 현대정유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어려움에 맞서 싸우며 도전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대정유 특유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으로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